

고 위험 집단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

안 혜 영* · 김 신 정** · 고 주 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정이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책임지는 인식처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하여 아동의 보호에 대한 가정의 기능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 또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은 부적절하게 수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가정이 아동학대가 자행되는 공포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Lee, 2000).

우리 나라에서 아동학대는 예로부터 체벌을 절대적인 훈육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던 사회문화적 특성(Choi, 1981)과 가부장적인 전통, 그리고 아동과 성인의 관계에서 왜곡된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전통(Kim, 1981; Ko, 1992; You, 1985)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미화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엄격한 신체적, 정신적 통제하에 두는 것을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에서 아동학대의 실상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로서 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동관련 전문가들의 관심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의식이 향상되고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이나 G7 서방 정상회담 등에서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가 중요 사회문제로 거론되면서 학제와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대중매체가 관심을 갖게 되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Yoon, 1999).

아동학대는 거의 모든 사회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원인의 하나로서 경제적 인 요인에 주목하는 기존의 구조적인 접근에 기반을 둔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환경 중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즉, 빈곤한 환경으로 인해 과도한 구조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 또는 저소득층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 개인은 다른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좌절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좌절에 대한 반응이 폭력으로 나타나며 그 목표물이 아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Boss, 1987).

특히 우리 사회는 1997년 말부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대량 실업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 목격되었다. 그리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와 유기, 방임이 크게 증가하였다(Yoon, 1999).

국내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낮은

* 울지외파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 한국복지재단 강원도 아동학대에방센터

투고일 2001년 11월 28일 심사회의일 2002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2002년 10월 1일

계층, 계부 또는 계모나 어머니가 없는 결혼 가정, 비숙련공 또는 실직 및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가진 가정, 자녀의 수가 많은 가정 등에서 보다 심각하고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hm & Hong, 1987).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전국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었으나, Hong(2000)이 1,094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인 규모의 학대 실태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43.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5명당 2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전체 아동학대 발생율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가 한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전이가 된다는 사실과 연관시켜볼 때, 계속적으로 우리 나라 아동학대의 발생율이 높아질 것을 시사한다.

사회의 가장 원초적 단위이며 인류 문화의 소중한 유산인 가정에 긴장이 내재하게 될 때 가정을 1차적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나 국가의 건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그들의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아동에게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오늘날의 아동들로 구성될 밝고 밝고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Ahm, 1999).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발생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의 빈도와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지지도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의 고위험 요인의 하나로 고려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현재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하였다.

- 1) 대상자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 지지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 지지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강원도의 3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주 양육자의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지지도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지지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의 3개 사회복지관의 수혜대상자로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결혼 빈곤 가정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학문적으로 아동의 범주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아동 양육의 1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가정내의 상황(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현재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아동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나 조부모, 친척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5월 12일부터 2001년 3월 10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편의 추출 방법에 의하여 연구자가 익숙한 강원도 지역을 선택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연구보조자로 대학생 2인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이나 질문지 기재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가 직접 복지관을 방문하였을 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협조를 승낙 받은 뒤

상담실에서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는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는데, 이때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다. 간혹 한글 해독 능력이 없거나 노환 등으로 인해 질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 보조자가 질문 내용을 읽어주고 답을 기입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와 어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고 재차 대상자의 답변을 확인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였다.

총 135개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CAPI(Child Abuse Potential Inventory)영역에서 CAPSCORE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도가 없다고 나타난 사례와 기타 영역에서 문항이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30개를 제외하여 총 105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 도구

1) 아동학대 측정 도구

아동학대란 아동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 및 복지를 저해하는 신체적 가해 행위(Ahn, 1998)로, 본 연구의 아동학대의 측정 도구는 Straus(1979)가 가족간 갈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지표로 개발한 가족갈등척도(Conflict Tactics Scale)중 폭력척도를 변안, 수정(Kwon, 1992)한 것이다.

폭력 척도는 폭력정도가 낮은 문항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폭력정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아동학대의 측정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아동에게 행한 각 항목의 행동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3번 문항은 경미한 아동학대, 4-6번 문항은 심한 아동학대, 7-10번 문항은 매우 심한 아동학대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의 발생빈도는 '전혀없다' '1-2회', '3-11회', '12회 이상'의 범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발생빈도가 많을 수록 아동이 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학대 잠재성 (Child Abuse Potential Inventory)

이는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으로 Milner(1986)가 학대 가능성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160개의 자가-보고 항목을 Ahn(1998)이 변안한 것이다. 이 도구는 디스트레스요인, 경직성요인, 불행감요인, 아동과

양육자 자신에 대한 문제요인, 가족과의 문제요인, 타인과의 문제요인의 6개의 요인 척도를 포함하는 신체적 학대 척도 점수로 6개 요인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디스트레스(distress) 요인은 개인의 디스트레스와 적응 문제에 관한 주제를 나타내며 경직성(rigidity) 요인은 아동의 행동 및 외양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낸다. 불행감(unhappiness) 요인은 불행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행복감 항목에 대한 부정적 가치로 기술되어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자신에 대한 문제(problems with child and self) 요인은 그들 아동을 부정적 자세로 지각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요인은 아동의 제한된 능력과 역량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과 양육자 자신의 제한된 신체적 능력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문제(problem with family) 요인은 가족관계속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지 또는 싸우는지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타인과의 문제(problem from others) 요인은 타인들이 아동 양육자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아동학대 잠재성 지수(CAP)는 타당성 있는 사정을 목적으로 세 가지 반응 왜곡 지수를 산출하는데, 그러기 위해 결합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짓말 척도(lie scale), 임의반응척도(random response scale), 비밀관성 척도(inconsistency scale)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CAP점수가 166점이상인 경우는 아동학대 잠재성이 매우 높은 고 위험군에 해당됨을(Milner, 1986)나타낸다.

3) 체벌 지지도

체벌에 대한 개인의 신념(Ko, 1992)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며, 규제가 적은 사회문화적 분위기이거나 양육자가 체벌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연구 결과로부터 Ko(1992)가 개발한 문항을 Ahn(2001)이 수정한 도구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적으로 찬성'에 5점, '대체로 찬성'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반대'에 2점, '전적으로 반대'에 1점을 주며,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점수를 주어 총 점수로 체벌에 대한 지지도 점수를 산출한 것이다. 이 척도는 체벌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 체벌의 효과에 대한 확신 문항, 체벌의 불가피성과 관련된 문항과 양육자의 체벌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는

10점-5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72 이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중 아동학대 잠재성(Child Abuse Potential)은 아동학대 잠재성의 점수를 산출하는 고유한 통계프로그램인 CAPSCORE 프로그램으로, 그외의 자료는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상자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빈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 지지도는 평균값으로 분석하였으며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 지지도와 관련된 요인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0-39세가 53명(50.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49세가 34명(32.4%), 30세 미만인 12명(11.4%), 50세 이상이 6명(5.7%)의

순이었다. 아동과의 관계는 어머니가 89명(8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가 8명(7.7%), 할머니가 4명(3.8%), 기타로 친척이 3명(2.9%)이었다. 결혼 상태는 동거가 76명(78.1%)으로 가장 많았고, 사별은 12명(12.4%), 이혼이 6명(6.2%), 별거가 3명(3.1%)이었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62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17명(16.5%), 국졸이 14명(13.6%), 대졸이 7명(6.8%), 무학이 3명(2.9%)의 순이었다. 가족의 수입은 50-99만원 43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만원 미만인 40명(38.1%), 100-199만원 22명(20.9%)의 순이었다 <Table 1>.

2. 대상자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빈도

대상자의 가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아동에게 행한 신체적 학대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아동학대 내용 중 실제로 발생한 빈도만을 고려하여 그 빈도를 살펴보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 아이에게 던졌다」는 1-2회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3-11회는 2.9%이었다. 「아이를 움켜 잡거나 때렸다」는 1-2회가 26.7%를 차지하였으며 「손으로 째 등을 때렸다」는 1-2회가 27.6%, 3-11회가 5.7%를 차지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age	below 30	12	11.4
	30-39	53	50.5
	40-49	34	32.4
	above 50	6	5.7
	no response	1	1.0
relationship	mother	89	85.6
	father	8	7.7
	grandmother	4	3.8
	etc	3	2.9
	no response	1	1.0
marital status	living together	76	78.4
	separation	3	3.1
	bereavement	12	12.4
	divorce	6	6.2
education level	none	3	2.9
	elementary school	14	13.6
	middle school	17	16.5
	high school	62	60.2
	graduate	7	6.8
family income (10,000 won)	no response	2	1.9
	below 50	40	38.1
	50-99	43	41.0
	100-199	22	20.9

였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물어 뜯었다」는 1-2회가 6.7%, 3-11회가 10%를 차지하였다. 「회초리, 굵은 막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는 1-2회가 34.3%, 3-11회가 12.4%를 차지하였으며 12회 이상이 되는 경우도 2.9%이었다. 「온 몸을 따구 두들겨 줬다」는 1-2회가 11.4%, 3-11회가 1.9%를 차지하였다. 「담뱃불 등으로 지켰다」와 「칼, 망치, 송곳,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하였다」는 1-2회가 각각 2.9%를 차지하였으며 「칼, 망치, 송곳,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1-2회가 1.9%를 차지하였다. 「아이를 때린 후 데리고 병원에 가 본 적이 있다」는 1-2회가 3.8%를 차지하였다.

발생한 아동학대 내용 중 정도에 있어서 경미한 아동학대(1-3번 문항)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는 「주위의 물건을 집어 아이에게 던졌다」가 39.1%로 가장 많았고, 심한 아동학대(4-6번 문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초리, 굵은 막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심한 아동학대(7-10번 문항)에서는 「아이를 때린 후 데리고 병원에 가 본 적이 있다」가 3.8%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발생 빈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는, 「회초리, 굵은 막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위의 물건을 집어 아이에게 던졌다」가 39.1%,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물어 뜯었다」가 33.3%의 순이었다.

3.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지지도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 지지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은 최소 35점, 최대 430점으로 평균 213.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학대의 고 위험군에 속하는 점수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 중 아동학대의 고 위험군에 속하는 166점 이상의 대상자는 70명으로 66.7%를 차지하였고 166점 미만이 33.3%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체벌지지도는 평균 32.2점으로 중앙값 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상자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보통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 지지도와 관련된 요인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 지지도와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4>

아동학대 잠재성은 대상자의 연령($r=.294, p<.002$)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상자의

<Table 2> Frequency of child abuse occurrence in home (N=105)

No	Content	frequency(year)			
		none	1-2 times	3-11 times	above 12times
1	Throwing the object at child	64(60.9)	38(36.2)	3(2.9)	·
2	Clutching and pushing	77(73.3)	28(26.7)	·	·
3	Slapping on the cheek	70(66.7)	29(27.6)	6(5.7)	·
4	Kicking, pounding and biting	97(92.4)	7(6.7)	1(1.0)	·
5	Rod, stick, belt, broom beating using a various objects such as	53(50.5)	36(34.3)	13(12.4)	3(2.9)
6	Beating all over the body	91(86.7)	12(11.4)	2(1.9)	·
7	Burning with cigarette	102(97.1)	3(2.9)	·	·
8	Threatening child with a knife, a hammer, a naxe, a gimlet the objects such as	102(97.1)	3(2.9)	·	·
9	Injuring child with the objects such as	103(98.1)	2(1.9)	·	·
10	Hospitalized by belting	101(96.2)	4(3.8)	·	·

<Table 3> Degree of child abuse potential and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N=105)

area	mean(SD)	min	max	CAP	
				below 166	above 166
child abuse potential	213.3(101.7)	35	430	35(33.3%)	70(66.7%)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32.2(3.9)	19	45		

<Table 4> Related factors with child abuse potential and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factor	child abuse potential		belief in corporal punishment	
	r	p	r	p
age	.294	.002	-.081	.414
education level	-.442	.000	-.050	.615
family income	-.355	.000	.084	.395

교육정도($r=-.442$, $p=.000$), 가족의 수입($r=-.355$, $p=.000$)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고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아동학대 잠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체벌 지지도는 대상자의 연령($r=-.081$, $p=.414$), 교육정도($r=-.050$, $p=.615$), 가족의 수입($r=.084$, $p=.395$)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고려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생빈도와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벌 지지도,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아동학대 예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된 연구이다.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주로 어머니로서 일반 가정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Ahn(2001)의 연구결과와 비교할때 어머니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대상자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별거, 이혼, 사별이 21.7%로 부부가 정상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는 78.5%이었다. 이는 일반 가정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Ahn(2001)와 비교할 때(Ahn 2001) 더 낮은 수치이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60.29%)이 가장 많았고 중졸(16.5%)이 그 다음으로 대다수의 학력이 중·고졸에 머무르고 있고 대졸이 6.8%에 그쳐 고졸과 대졸이 91.1%에 해당하는 Ahn(2001)의 연구와는 대조적이었다. 가족의 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79.1%로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Ahn(2001)의 연구에서는 100만원 미만인 가정이 7.4%에 불과한 것과는 크게 비교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계층에 해당되며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의 빈도는 10문항의 내용 모두에서 1-2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가 행한 아동학대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1-3번 문항에 해당되는 경미한 아동학대는 39.1%,

26.7%, 33.3%로 나타났는데, 이는 Ahn(1998)이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 9.0%, 8.0%로 나타난 결과나 Ahn(2001)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1.1%, 21.1%, 19.0%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4-6번 문항에 해당되는 심한 아동학대는 7.7%, 49.5%, 13.3%가 발생하였는데 Ahn(1998, 2001)의 연구에서는 각각 4.5%, 54.3%, 10.1%와 4.1%, 51.7%, 6.8%로 나타났다. 매우 심한 아동학대는 본 연구에서는 2.9%, 2.9%, 1.9%, 3.8%발생한 것에 비해 Ahn(1998, 2001)의 연구에서는 각각 0.4%, 0.4%, 0.8%, 0.4%와 0%, 0.7%, 0%, 0%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경미한 학대부터 매우 심한 학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 연구 대상자의 학대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생활보호 대상자의 아동이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아동학대가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결혼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때 발생이 증가한다는 결과(Conger, Burgess & Barrett, 1980; Erlanger, 1974; Hong, 1987; Ko, 1992)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매우 심한 학대 행위가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증가해 있었음은 이들 가정 아동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는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회초리, 굵은 락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의 경우, 빈도에 있어서 12회 이상이 2.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위의 행위가 우리 나라라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가정에서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학대행위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은 평균 21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잠재성 도구(child abuse potential inventory)에서 166점을 학대의 고 위험군에 해당되는 점수로 제시(Milner, 1986)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가 고 위험군에 속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66.7%는 166점 이상으로서,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자의 체별 지지도는 평균 32.2점으로 중앙값 30점보다 높게 나타나 대상자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보통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체별 지지도는 연구자가 추측한 점수보다는 낮은 수치로 이에 대해서는 반복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체별 지지도의 신념 외에도 대상자의 아동학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황적인 변수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연령,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현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이들 집단에 있어서 연령이 많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구체화된 교육이 요구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체별지지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관련 있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요인과 관련된 다각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이 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빈도와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별 지지도, 아동학대 잠재성 및 체별 지지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 집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의 3개 사회복지관의 수혜 대상자로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결손 빈곤 가정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5월 12일부터 2001년 3월 10일까지로 편의추출방법에 의해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05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도구는 Straus(1979)의 가족갈등 척도 중 Kwon(1992)이 폭력 척도를 수정하여 기존의 아동학대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아동학대 잠재성 도구는 Milner(1986)가 개발한 것을 Milner의 동의하에 한국어로 번안한 160개 문항의 자

가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체별 지지도는 Ko(1992)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한 도구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CAPSCORE 프로그램과 SPSS wi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과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의 연령은 30-39세가 50.5%로 가장 많았고 아동과의 관계는 어머니가 8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결혼상태는 동거가 78.4%이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60.2%로 가장 많았다. 가족수입은 50-99만원이 41.0%로 가장 많았는데, 50만원 미만도 38.1%를 차지하였다.
2. 대상자 가정에서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빈도에서, 문항별로 백분율을 산출하였을 때 경미한 학대는 39.1%, 26.7%, 33.3%이었으며 심한 학대는 7.7%, 49.5%, 13.3%이었고 매우 심한 학대는 2.9%, 2.9%, 1.9%, 3.8%으로 아동이 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은 평균 213.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 위험으로 분류되는 아동학대 잠재성 점수가 166점 이상인 대상자는 66.7%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체별 지지도는 평균 32.2점으로 대상자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아동학대 잠재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요소는 대상자의 연령($r=.294, p<.002$), 교육정도($r=-.442, p<.000$), 가족의 수입($r=-.355, p<.000$)으로 나타났으며 체별지지도는 제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입이 적은 결손 빈곤가정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서는 아동학대의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잠재성이 심각할 만큼 증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 생활 수준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자원이 부족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중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여기에는 양육자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해 가정방문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개별적인 예방적 접근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로 생각된다.

References

- Ahn, D. H. (1999). *Establishment of mandatory report system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Paper presented at Seminar of Korea Associa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Seoul.
- Ahn, D. H., & Hong K. E. (1987). A survey of child abuse in Korea. *Mental Health Research*, 6, 53-65.
- Ahn, H. Y. (1998). *Predictive model of child abuse in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Ahn, H. Y. (2001) Influences of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to physical child abuse in elementary students parent.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2), 482-490
- Boss, Pauline (1987). Family Stress. Marvin B., Sussman and Suzanne K. Steinmen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 Choi, S. J. (1981). New Approach of Analysis for effective punishment. *Child Welfare*, 35(19), 8-12.
- Conger, R. P., Burgess, R. L. & Barrett, C. (1980). Child abuse related to life change and perceptions of illness : some preliminary findings. in J. V. Cook & R. T. Bowles(eds), *Child abuse-commissions and omissions*. toronto: Butterworth Company, 255-261.
- Erlanger, H. S. (1974). Social class and corporal punishment in child-rearing : a reassessment. *A.S.R.*, 39(1), 68-85.
- Hong, K. E. (1987). A prevention of child battering. *Mental Health Research*, 6, 82-93.
- Hong, K. E. (2000). *A Survey of battered child and sequelae*. Paper presented at Seminar of Korea Associa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Seoul.
- Kim, D. H. (1981). *Korean family system*. Seoul. : Seoul National Univ. Press.
- Ko, B. J. (1992). An incidence survey of battered child in the two elementary schools of seoul.-a follow up study in 5 years-.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3(1), 56-72.
- Ko, S. H. (1992). *Studies on defining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other and child toward the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won, J. Y. (1992).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in the emotions and behaviors*. Unpublishe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H. J., & Park S. Y. (2000).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crisis on the child abuse in low income families. *Research in Health & Society*, 20(1), 64-85.
- Milner, J.S.(1986). *The Child Abuse Potential Inventory Manual*(2nd Ed). Webster, NC: Dekalb, IL. Psytec Corporation.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75-78.
- Yoon H. M. (1999). *Child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Paper presented at Seminar of Korea Associa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Seoul. 33-61.
- You, A. J. (1985). *Korean traditional child education*. Seoul : Jeongmin-sa.

- Abstract -

Child Abuse in High-risk Group

Ahn, Hye-Young · Kim, Shin-Jeong**
Ko, Ju-A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preventive child abuse program development.

Method: Data were collected on 105 high-risk families of child abuse intervention was obtained from their main child rearer who raised the child under 18 years, olds during 10 months period from May, 2000 to March 2001.

Resul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Child abuse occurred in the subject's home, in the case of mild child abuse, 'throwing an object at the child' had the highest percentage 39.1%, in severe child abuse, 'rod, stick, belt, broom beating or using a variety of objects such as' had the highest percentage 49.5%, and in very severe child

abuse, 'hospitalized by belting' had the highest percentage 3.8%

2. The degree of child abuse potential showed high risk child abuse score with a mean of 213.3. The degree of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showed that subjects perceived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positively with a mean of 32.2.
3. With respect to the child abuse potential,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subjects' age ($r=.294$, $p=.002$), education level ($r=-.442$, $p=.000$), and family income ($r=-.355$, $p=.000$).

Conclusion: From this study not only child abuse occurrence but also child abuse potential were severely increased in poor livelihood families. Therefore to the high risk group, individual preventive approach must be applied.

Key words : Child abuse, Child abuse potential,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 Kangwondo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Korea Welfare Foundation